

군산, 세계 3대 우수교육도시 선정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우수교육도시상’ 수상

군산시가 평생교육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우수교육도시상’로 선정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해 군산시 관계자들은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열린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제15회 세계총회 행사에 참여해 평생교육을 통한 군산 원도심 재생사업의 사례로 IAEC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우수교육도시상은 ‘참여를 통한 시민 교육(Civic Education through Participation)’이라는 IAEC의 국제교육도시현장의 정신에 부합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관련 혁신 시책을 펼친 도시에 주

어진다. 군산시는 전 세계 IAEC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교육도시상에 공모해 심사를 거쳐 과나후아토(멕시코), 세투발(포르투갈)과 함께 세계 3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됐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관계자는 “군산시의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을 이끌어내 근대역사문화유산을 지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했으며 이는 전 세계 평생교육 회원도시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최종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승복 부시장은 이날 IAEC 우수교육도시상 수상에 이어 전 세계 38개

국 1,00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평생학습 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쇠퇴를 거듭하던 원도심 지역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를 발표해 전 세계 회원도시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IAEC 우수교육도시상 수상을 통해 민선7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를 모토로 꾸준히 추진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국제교육 회원도시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군산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교육도

시와의 평생교육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군산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생교육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은 평생교육 회원도시 간 공동연구와 국제협력력을 위해 1994년 설립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38개국 489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군산시는 2008년 10월에 가입해 2009년 IAEC 아시아 태평양지역 네트워크 집행도시로 3회 연속(~2022년) 선정됐으며 지난 2010년 10월 IAEC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를 군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국·장애인 체전 유공자에 감사

익산시, 유공자 공로패 전달·자금심 고취

익산시는 지난 16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과 255명의 수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2018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유공자 감사행사를 개최했다. 공로패를 수상한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김삼식 부단장은 “익산 시민들을 대표하여 공로패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10월 개

최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치르면서 익산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2018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30만 익산시민들의 노력 결실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5월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농업회의소 창립 다짐대회

익산시가 내년 3월에 창립하는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창립을 다짐하기 위해 16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창립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명예농업시장, 익산시의회,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지역농·축·원협, 산림조합,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농업인단체 및 농업회의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회의소 타 시군 운영사례를 듣고 익산시의 설립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했다.

첫 번째로 거창군의 농업회의소 김훈규 사무국장이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로 설립한 거창군 농업회의소 김훈규 사무국장은 “다른 시군에 비해 초기에 시작한 만큼 다양한 도전이 경험과 깨달음이 되었고, 현장의 지역 현안에 대해 농업회의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의 대표 민간 대의기구로서 각종 농업관련 부문에

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업회의소는 회원의 참여가 전체 농정의 기류를 바꾸고 지역 농정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익산시 농업회의소 TF팀 운영진 위원이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에서는 2015년부터 민간추진단을 시작으로 농업회의소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익산시 농민연대와 함께 2017년 9월 농식품부 주관인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 1월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 TF팀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은 “농업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대의기구인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내년 3월 성공적으로 창립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의기구로 정책자문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11개 시군에서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19개 시군에서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연찬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지난 15일 여수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김충영 위원장은 “민선 7기 첫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는 만큼 이번 직무연찬회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심사기법의 습득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

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히며, “제8대 익산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익산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는 제214회 제2차 정례회(11월 28일~12월 20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가 신규 임용공무원을 신규 임용자 직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시,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실시

군산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5일 성산면 고봉제 일원에서 2018년 폭설 대응 교통소

통대책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설 시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소통

취약지역인 성산면 고봉제를 현장훈련 장소로 선정해 군산시의 군산경찰서 재난 및 제설 부서관계자, 자율방재단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립 상황을 가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회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실질적인 훈련 성과를 위해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와 제설장비 15대가 동원됐으며, 성산면 농공단지에서 항오초교 구간 차량을 오후 2시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 통제하고 국도 27호선으로 차량을 우회하여 통행시켰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재난에 대처하며 재난 상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대응을 펼쳐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익산시,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익산시가 지난 15일 충주 수안보스카장 일원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등 13개 기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진화 주최한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2018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최우수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관리기관 간 산불 진화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등 지상 진화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산불 감시 및 진화에 총력을 다해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신규 임용자 직무·현장교육

군산시가 2018년 신규 임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2018년 신규 임용자 직무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생활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임무, 복무교육, 성공적인 직장생활 등 기본 소양교육과 군산시를

알아가는 현장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정영태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시 행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